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발행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 주소 02862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20길 27 (빛의사람들) 전화 02)921-5093
FAX 02)921-7847 E-Mail kyodo@catholic.or.kr 홈페이지 www.catholic-correction.co.kr

머리글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심장이 아니다. 가장 아픈 곳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유월입니다. 예수 성심을 그린 성화를 보면, 가시관을 쓴 심장, 혹은 불타는 심장이 그려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형상화하면서, 우리의 죄로 예수님의 상처를 주고 있음을 함께 표현한 것이 아닐까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 마음이 가시관으로 피 흘리시는 것은,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과 함께 아파하시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냥, 사람”(홍은전 저)이라는 책을 읽다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심장이 아니다. 가장 아픈 곳이다.”라는 구절에 머물렀습니다. 물론 심장이 멈추면 죽게 되기에 중요하게 생각되곤 하지만, 손가락에 작은 가시라도 박히면 온갖 신경이 몰립니다. 가장 아프고, 가장 약한 곳, 그곳에 우리 마음이 머물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그렇게 가장 아프고 약한 부분에 머무실 것입니다. 나의 나쁜 생각과 습관, 아픈 상처들에 예수님 마음이 더 머무르시며 슬퍼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에서도 가장 아픈 곳, 가장 약한 곳에 예수님께서 마음 두실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 노숙인들, 아픈 이들, 어르신들, 장애인들, 그리고 우리 수용자들. 특별히 이렇게 전염병으로 모두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약자를 돌보기 힘들 때, 돌봄이 필요한 많은 이들은 더욱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찾는 사람이 더 줄어들어 더 형편이 어려운 수용자가 많아졌습니다. 생활이 더욱 각박해진 수용자 가족들도 많아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교정기관 출입을 못 하고 있지만, 불우 수용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더 많은 수용자 가족을 돌보고 있습니다. 후원자분들의 그 마음을, 예수님 마음이 머무는 그 우리 사회의 아픈 곳, 우리 사회의 약한 곳에 잘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 마음이 머무는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향해야겠습니다. 약한 곳, 아픈 곳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 함께 할 때, 그곳은 강해질 것이고, 그렇게 우리 사회는 점차 강해지리라 생각합니다.

다시금 되새겨 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심장이 아니다. 가장 아픈 곳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가장 큰 매출을 이룩하는 곳도,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자가 머무는 곳도 아니라, 가장 약한 이들이 있는 곳이다.” 예수 성심은 아픈 이들과, 약한 이들과 함께 아파하고 계실 것입니다.

기쁨의 선물

김완기 분도요셉 / 수유동 본당

같은 본당의 김 세실리아 자매님으로부터 교도소에서 집회가 있는데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고, 평소 주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주께서 나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한다면 주저치 말고 ‘예’ 해야 옳다고 생각해 온 터라 ‘참 좋은 일이다’ 싶어 대답은 했으나 막상 이야기를 준비하려 하니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왜냐하면, 학식이 풍부한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세상 경험이 많아 별난 이야깃거리가 있는 것도 아닌 처지에 더구나 상대가 상대인 만큼 무슨 이야기를 한단 말인가. 궁리, 궁리 끝에 영세 후의 신앙생활 고백이나 하기로 생각하고 몇 가지 예를 추렸다.

처음 간 곳은 의정부교도소였다. 나 자신 보잘것없는 사람인 데다 죄인을 상대로 이야기한다. 생각 하나 불안한 마음 그지없어 오직 모든 것을 성령께 맡기고 매달렸다. 현지에 도착하니 주일인데도 소장님이 일부러 출근하여 맞아주셨고 집회에 끝까지 참석하시어 격려까지 해 주심에 무척 감사했다.

강당에 가득한 형제들 앞에 서니 가슴에 확 와 닿는 게 있었다. 과연 누가 단 아래 있고 누가 단 위에 있어야 옳은 일인가? 내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자리가 뒤바뀐 것은 아닐까? 아니면 우리도 공범자의 책임은 없을까? 그들은 자유를 누리는 우리를 위해, 우리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나는, 우리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했단 말인가? 부끄럽고, 미안하고, 오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무슨 설교를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형제로서 만나고 싶어 왔노라고 했다. 그리고 오랜 방황 끝에 개종 입교하여 익사 일보 직전에 살아난 이야기, 결혼 10여 년 간 한없이 참고, 용서하고, 주려고 노력한 이야기, 그리고 나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과 나의 기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이야기를 했다.

끝으로 나는 그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기쁨의 선물을 준다고 했다. 나는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것도 아니요, 경제적으로 넉넉한 것도 아니고, 튼튼한 몸을 가진 것도 아니지만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살기에 기쁨을 누릴 수 있으니 형제들도 비록 두꺼운 벽 안에서 살지만,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기쁨 속에 살기를 부탁하며 이야기를 끝맺고 ‘주께선 나의 피난처’란 나의 애창 성가를 불렀다. 돌아오는 발걸음은 가볍고 이 일을 위해 애쓰는 사목회가 무척 고마웠다.



다시 찾은 소중함

김순애 마리아 막달레나_서울남부구치소 여사 대표봉사자

지난 1년이 넘게 흘러간 세월, 막연히 금방 끝나 곧 교정시설에 들어가 여느 때처럼 자매들과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될 줄 알았습니다. 기다리던 세월이 1년이 넘어 2년도 지날 수 있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교정시설 방문이 아쉽다는 생각이, 점점 쉬니까 편하고 여유시간이 생기니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가던 성당도 못 가게 되었지만, 그 시간이 여유로워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편하고 여유로운 시간으로 꼭 쉼다는 생각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유로웠던 시간이 지나면서 의미 없이 지내는 시간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한이 조금 풀려 다시 성당을 갈 수 있게 되어, 몇 달 만에 미사를 드리고 영성체를 모시면서 눈물이 울컥 나왔습니다.

성당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이렇게 감사하고 소중한 것임을 새롭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성당을 가면서 의무적이고 그냥 일상생활의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다는 기쁜 마음으로 미사를 봉헌하러 갑니다.

미사 1시간 전에 가서 기도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묵주 기도를 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제가 구치소 봉사를 시작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런 시기가 있기에 봉사라는 생각이 그저 의무적으로 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다시 그분들을 만나면 ‘어떻게 주님을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나도 그분들과 같이 주님을 모르고 있을 때, 삶이 힘들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할 때마다 주위의 지인들이 옆에서 이끌어 주고 보듬어 주고 일으켜 세워주면서 주님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저도 그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주님께 가는 발걸음이 가볍고 기쁘고 감사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교정시설의 모든 집회와 미사가 중지되어 그분들도 재개되기를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 코로나 19 종식으로 다시 봉사하게 되면 열심히 그들에게 주님을 알리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이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_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모세의 장인 이름은 ‘르우엘’, ‘이트로’, ‘호밥’등으로 혼용되어 쓰입니다. 처음 등장하는 이름은 ‘르우엘’입니다. 모세가 파라오를 피해서 낯선 미디안으로 도망쳐 왔을 때, ‘미디안의 사제’의 일곱 딸을 도와 양 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그 딸들의 아버지 ‘르우엘’(탈출 2,18)이 이 이야기를 듣고 감탄하며 음식을 대접하고 그의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탈출기 3장 1절에서는 ‘미디안의 사제인 장인 이트로’라고 다른 이름으로 표현됩니다. 이후 18장에서도 ‘이트로’로 나오다가 ‘르우엘의 아들 호밥’(민수 10,29; 판관 4,11)이 장인 이름처럼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름들이 다른 것은 전승 자료의 차이일 수도 있고 혹은 ‘장인’이라는 단어가 오늘날 ‘아내의 아버지’만을 의미하기보다는 ‘아내의 가족’을 의미하여 처제나 처남까지도 포괄하는 단어로 쓰였을 것이라는 학설도 있습니다. 르우엘은 하느님의 친구, 호밥은 사랑받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반면 이트로는 고유 명사라기보다는 ‘대감’, ‘폐하’ 등을 뜻하는 관직 혹은 존칭을 말한다는 학자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이름을 적어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역할이 크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고 다른 신의 제사장이었음에도 그가 모세에게 미친 위상과 영향력이 대단하였습니 다.

그가 딸들에게 말하였다. “그가 어디 있느냐? 어찌서 그 사람을 내버려 두었느냐? 그를 불러다 음식을 대접하여라.” 그 뒤 모세가 그 사람의 청을 받아들여 함께 살기로 하자, 그는 자기 딸 치포라를 모세에게 주었다. (탈출 2,20-21)

모세와 모세 장인의 첫 만남은 모세가 도망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동족들을 도와준다고 나섰다가 동족들에게도 거부당하고 또한 자신을 지금껏 가족처럼 키워준 파라오에게도 쫓기게 됩니다. 그렇게 이민족 땅에 왔건만, 이곳에서도 또 약자였던 여성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도움이 이방인에 의해 인정받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정착하게 됩니다. 모세의 장인은

이민족이며 도망자 신세이지만, 모세의 진정성을 보고 호의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두 번째 만남 역시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파라오에게서 해방됐건만, 모세에게 배고프다며 불평하고 마실 물이 없다며 불평합니다. 그렇게 또다시 동족과 맞서게 되고 또 이방인 아말렉족과 전투를 한 뒤, 장인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만남 때의 도망자 신세는 아니었지만, 모세는 몸과 마음이 지쳐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그를 만난 모세의 장인은 모세에게서 하느님을 발견하고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이러한 찬양은 모세를 힘이 나게 했습니다.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이트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해 내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온갖 고마운 일을 듣고 기뻐하였다. 이트로가 말하였다. “이집트인들의 손과 파라오의 손에서 자네들을 구해 주신 주님, 이 백성을 이집트인들의 손 아래에서 빼내어 구해 주신 주님께서서는 찬미받으시리라!”(탈출 18,9-10)

이 두 번째 만남에서 모세 장인은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들 분쟁을 재판하기 위해 시간 쓰는 것을 보고 일을 분담하도록 조언을 합니다. 어려움을 보고 해결할 수 있는 충고를 해줍니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방황할 때, 단순히 음식만 대접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아주고 정착시켜주었으며, 그에게 하느님께서 하신 큰일을 보고 기뻐하며 찬양하였습니다. 또한, 실질적 조언까지 해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모세의 일생에서 하느님과의 중요한 만남 일화들, 즉 불타는 떨기 가운데 하느님과 만나 소명을 받음(탈출 3,1-22), 그리고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과 만나 십계명을 받음(탈출 19,1-20,17), 모두 모세 장인을 만난 이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연일지도 모르지만,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하느님을 만나기 전에 준비시켜 주는 역할을 하였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세 장인에게서 우리 교정 봉사자 및 후원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회로부터 거부당하고 방황하는 수용자들에게 따뜻한 정을 베풀며, 때로는 그들 안에서 큰일을 베푸신 하느님을 발견하고 함께 기뻐하며 축하해줍니다. 조언하기도 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의 도움으로 수용자들이 하느님을 만나게 되고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리라 기대해봅니다.

내일은 좀 더 웃을 수 있는 일 (2)

5월 소식지 6면 계속>

허OO / 2021년 창업 대출자

▶ 앞으로 영업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어떤 것일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현재 홈케어 서비스의 성수기인 여름으로 들어서서 일의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어려움이 없지만, 비수기인 겨울로 접어들면 에어컨, 세탁기 청소, 해충 방역 및 소독업 등 고객의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대비해서 홈케어 관련 분야인 후드, 환풍기 청소 및 교체 그리고 보일러 설치 및 배관 청소 관련 분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겨울에는 보일러 쪽이 성수기다 보니 관련 자격 취득과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만나서 현장 업무를 배울 계획에 있습니다.

▶ 예비창업자에게 꼭 해주고 싶은 당부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선은 창업하고자 하시는 관련 업종에서 일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직원으로 일을 시작하지만, 대표라는 마음가짐으로 일했을 때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야 하고 나에게 어떤 점이 부족한지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금도 어느 정도는 모을 수 있을뿐더러 기술력도 배울 수 있고 현업의 종사하는 선배들의 인맥도 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업하신 선배님들이 얼마를 벌었다고 했어도 돈을 얼마나 벌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수익이라는 게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가? 1년을 평균 잡았을 때 내가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 나은 삶인가, 나 또한 그 선배와 같이 일할 능력치가 되어있는가를 살피고 창업에 뛰어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결국의 결정은 본인 자신이 하는 거고 일을 할 때나 일하고 모든 책임은 나 자신이 안고 가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직원의 개념이 아닌 대표자로서 책임질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창업지원 제도에 대한 개선 점을 제시한다면?

‘기쁨과희망은행’이라는 창업지원 제도가 있다는 것에 저에게는 너무 큰 기쁨이었고 너무 간절하고 필요한 자금이었기에 지원하고 준비하는 과정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중에 창업을 전 다시금 생각하고 정리하는 과정이었고 많은 걸 또 배웠습니다. 단지 한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이 기간 고정지출비용인 차량 대여비용이 매달 발생하다 보니 부담이 많이 되었는데 기간이 조금 단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대신 창업자금을 큰 폭이 아닌 작은 소액금액으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일부분 지원을 받아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돌아가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기쁨과희망은행에 대해 한마디 한다면?

‘기쁨과희망은행’은 저처럼 출소 후 사회에 나와 힘들어할 때 수많은 사람이 따뜻하게 두 손 잡아주고 힘내라고 응원하며 만들어진 기관이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마음과 손길이 열심히 살려고 하는 출소자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재범방지를 위해 쓰이고 또한 긍정적인 시너지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 사회에 더 알려지고 도움을 받은 사람과 도움을 준 사람이 서로 함께 ‘동행’하며 따뜻하고 바른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저와 함께 ‘기쁨과 희망은행’이 언제나 ‘동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본보기가 되어 많은 사람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사가님께

안녕하세요 봉사자님!

학교 수업으로 직접 만나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편지로 감사 인사 전해 드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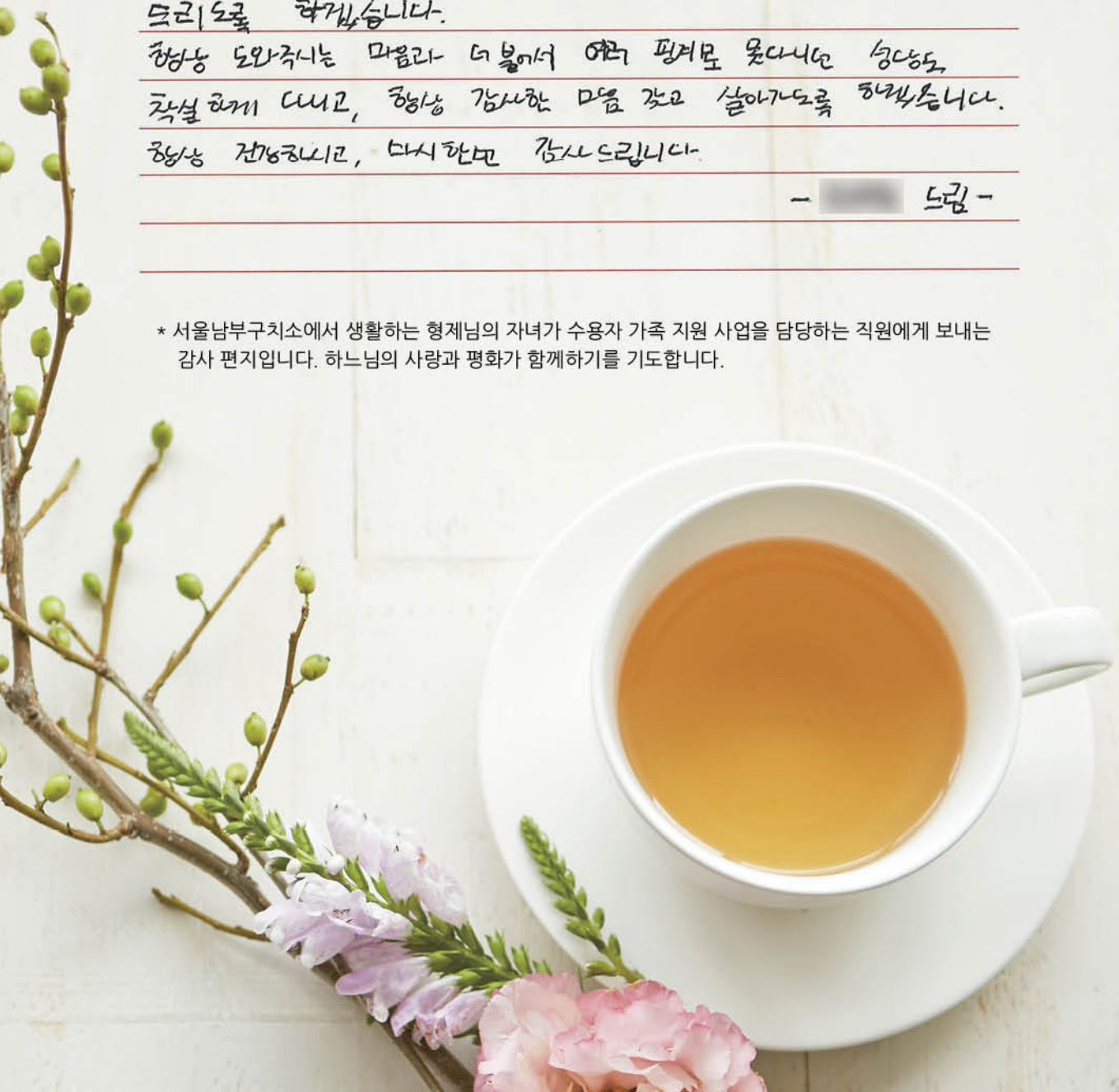
봉사자님께서 항상 저희집 안락목으시고 도와주셔서 저를 돌봐주셨는데,
이런 편지로 만나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 어머니랑 직접 찾아드리고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도와주시는 마음과 더불어 여러 핏줄로 못다니는 성당도
꼭설하게 다니고, 항상 감사한 마음 갖고 살아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redacted] 드림 -

*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생활하는 형제님의 자녀가 수용자 가족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보내는
감사 편지입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12월까지**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가 중단**될 예정입니다.
수용자, 출소자, 피해자 가족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교정사목 휴대폰 번호 : 010-3732-5093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카카오톡 채널**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카카오톡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공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 코드를 찍으면 채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채널

● **새로운 교정사목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4/16~5/12)**

2021년 4월~5월에는 김기례 로사, 김명순 마리아, 김희숙 마리아, 박수연 제르트루다, 장동익, 전인숙 힐데가르트, 조순남 에메렌시아나님께서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임재남님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린 후원금을 지로로 납부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한 장으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절약됩니다.
(장당 210원~240원 수수료 부과)

※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회원분들은 **010-3732-5093** 교정사목 휴대폰으로 문자 부탁드립니다.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신한 100-019-558299

우리 1005-700-335190
하나 209-910017-31705

국민 375301-04-003539